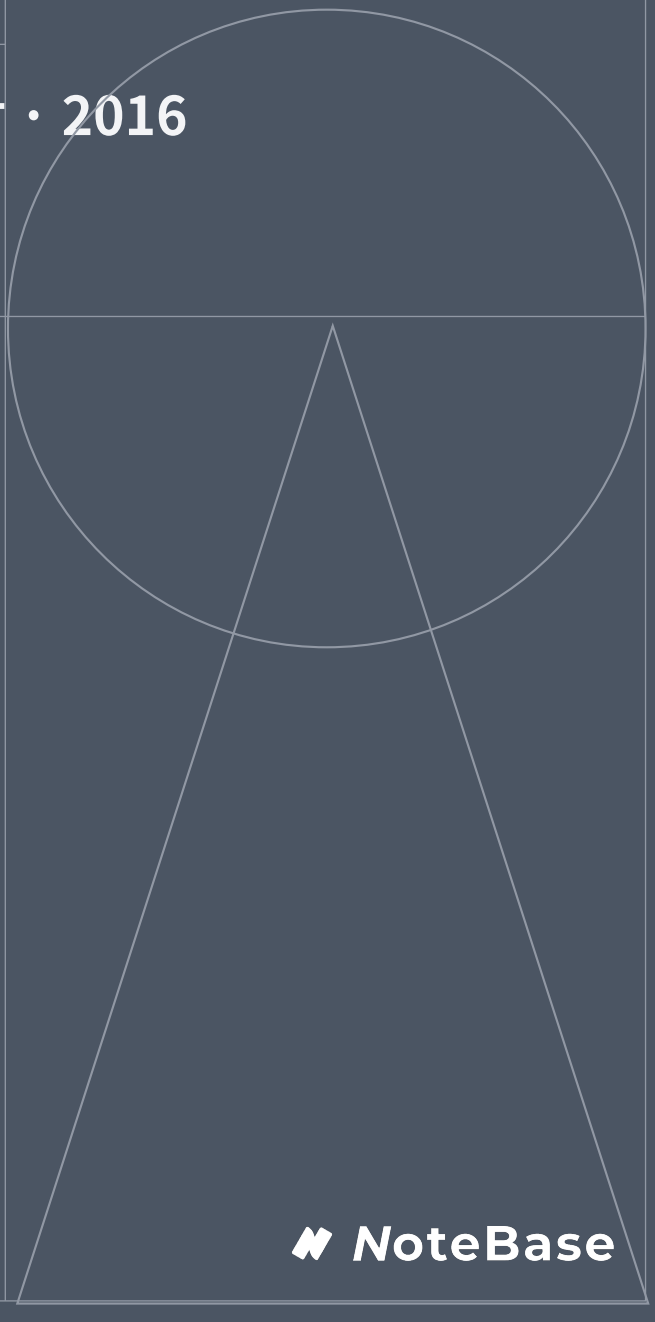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6

문 1.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생교육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유네스코의 역할이 컸다.

②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교육시기의 연장과 교육장의 확대 등에서 찾으려 했다.

③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지식과 이론 중심으로 교육대상을 선발하여 가르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평생교육의 기본 성격과 학교교육 중심 사고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모든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뜻한다. 핵심 키워드는 계속성, 개방성, 학습자 중심성, 교육기회의 확대이다. 학교교육 중심 발상은 일정 연령의 학습자를 선발해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무게를 두지만, 평생교육은 학교 안팎을 아우르며 실생활과 실천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평생교육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성인교육과 평생학습 담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킨 핵심 기구였다.
② O.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 시기의 연장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며, 학교 밖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연속적 학습으로 보았다.
③ O.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인정한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지식과 이론 중심으로', '교육대상을 선발하여'라는 표현이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보조에 한정되지 않고 전 생애의 학습을 포괄하며, 실생활과 실천을 중시하고, 특정 대상만 선발하는 폐쇄적 교육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평생교육을 학교의 보충수업이나 성인 대상 부가교육 정도로 좁게 보면 ④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④는 학교교육의 선발성, 지식 중심성, 제도권 중심성을 평생교육의 성격처럼 바꿔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생교육 선지에서는 전 생애, 학교 안팎, 학습기회 확대, 개방성, 학습자 중심성 같은 표현이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선발, 특정 연령 한정, 학교보조, 지식 주입 중심처럼 학교교육의 전형적 특징을 앞세우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평생교육은 전 생애·전 영역·전 국민 대상의 개방적 학습이며, 선발형 학교교육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2. 서양 교육사상가의 교육사상과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소(Rousseau)는 부모와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적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페스탈로치(Pestalozzi)는 빈민과 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노작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③ 프뢰벨(Fröbel)은 종교, 자연, 수학, 언어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을 강조하였다.

④ 헤르바르트(Herbart)가 제시한 수업의 형식단계설에서 체계와 방법은 전심(concentration) 과정에 해당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 헤르바르트의 대표 교육사상과 교육실천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루소: 자연주의와 소극적 교육을 강조한 사상가로, 성인의 인위적 간섭을 줄이고 아동의 자연적 발달을 중시하였다.
페스탈로치: 빈민과 고아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노작의 교육적 가치를 중시한 사상가로, 머리·가슴·손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였다.
프뢰벨: 유치원의 창시자로, 놀이·자기활동·은물·작업을 통한 유아교육을 강조하였다.
헤르바르트: 교수의 형식단계설을 제시한 사상가로, 명료·연합·체계·방법의 단계를 통해 수업을 체계화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부모와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적극교육"이다. 루소는 아동의 자연적 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성인의 직접 간섭을 줄이는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② O: 페스탈로치는 빈민과 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을 실천하였고, 노동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격 형성과 생활교육의 수단으로 보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종교, 자연, 수학, 언어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이다. 프뢰벨은 유아기에는 놀이와 자기활동, 은물과 작업을 중심으로 교육을 보았고, 종교·자연·수학·언어·예술은 보다 넓은 교육내용으로 제시하였다.
④ X: 틀린 부분은 "체계와 방법은 전심 과정"이다. 헤르바르트의 형식단계설에서 명료와 연합은 전심에, 체계와 방법은 숙고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루소를 아동중심 교육가라는 이유만으로 적극교육과 연결하거나, 프뢰벨의 전체 교육내용을 그대로 유아기 핵심 방법으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헤르바르트는 형식단계의 명칭만 외우고 전심과 숙고의 대응을 놓치면 ④에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인물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루소는 자연과 소극적 교육, 페스탈로치는 빈민·고아 교육과 노작, 프뢰벨은 유치원·놀이·은물, 헤르바르트는 형식단계설과 전심·숙고의 구분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루소는 자연, 페스탈로치는 노작, 프뢰벨은 놀이, 헤르바르트는 형식단계이다.

NoteBase

문 3. 브리지즈(Bridges)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영역이란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을 말한다.

② 구성원들이 수용영역의 안에 있는 경우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적절성(relevance) 검증이란 결정할 사안에 대하여 구성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④ 전문성(expertise) 검증이란 구성원이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브리지즈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수용영역과 그 판단기준인 적절성, 전문성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용영역은 구성원이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큰 의문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범위이다.
적절성은 그 결정 결과가 구성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정도이다.
전문성은 구성원이 그 결정의 질을 높일 만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용영역의 정의를 옳게 설명한 선지이다. 수용영역은 구성원이 상급자의 결정을 특별한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영역을 뜻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용영역의 안에 있는 경우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다. 실제로는 수용영역 안에 있으면 구성원들이 상급자의 결정을 비교적 쉽게 수용하므로 참여의 필요성이 낮다. 특히 적절성과 전문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아도 된다.
③ O: 적절성 검증은 해당 결정이 구성원에게 개인적 이해관계나 관심을 갖게 하는 사안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선지는 적절성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다.
④ O: 전문성 검증은 구성원이 그 결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선지는 전문성의 뜻을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수용영역 안에 있으면 참여를 더 넓혀야 한다고 거꾸로 연결하기 쉽다. 브리지즈 모형은 수용영역 안일수록 상급자의 단독 결정이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참여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브리지즈 모형 문제는 먼저 그 사안이 구성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음으로 결정에 기여할 전문성이 있는지를 본다. 둘 다 없으면 수용영역 안으로 보고 참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둘 다 크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적절성은 "내 일인가"이고, 전문성은 "내가 보탤 지식이 있는가"이다. 둘 다 약하면 수용영역 안, 참여 필요성도 낮다.

NoteBase

문 4. 지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스피어만(Spearman)은 지능이 일반요인과 특수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② 카텔(Cattell)은 지능을 유동지능과 발달지능으로 구분하였다.

③ 스턴버그(Sternberg)는 다양한 측면의 지능을 인정하는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하였다.

④ 가드너(Gardner)는 지능을 성분적, 경험적, 맥락적 요소로 설명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인 지능이론 학자와 그 핵심 개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스피어만: 일반요인 g과 특수요인 s로 지능을 설명한 2요인설이다.
카텔: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지능을 구분하였다.
스턴버그: 성분적, 경험적, 맥락적 요소로 이루어진 삼원지능이론을 제시하였다.
가드너: 언어, 논리수학, 공간 등 여러 독립적 능력을 인정하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스피어만은 지능이 공통으로 작용하는 일반요인과 과제별 특수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선지의 일반요인과 특수요인이라는 연결이 정확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발달지능'이다. 카텔은 지능을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구분하였다. 유동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결정지능은 학습과 경험으로 축적된 능력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다중지능이론'이다. 스턴버그는 다양한 측면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다중지능이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분적·경험적·맥락적 요소를 묶은 삼원지능이론을 주장하였다. 다중지능이론은 가드너의 이론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성분적, 경험적, 맥락적 요소'이다. 이 구분은 가드너가 아니라 스턴버그의 삼원지능이론 내용이다. 가드너는 여러 영역의 독립적인 지능을 인정하는 다중지능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오답 포인트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과 스턴버그의 삼원지능이론을 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쉽게 틀리게 된다. 또한 카텔의 결정지능을 낯선 표현인 '발달지능'으로 바꾸어 놓으면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이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을 보면 먼저 대표 짝을 떠올리면 된다. 스피어만은 일반요인·특수요인, 카텔은 유동지능·결정지능, 스턴버그는 성분적·경험적·맥락적 요소, 가드너는 다중지능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스피어만은 $g \cdot s$, 카텔은 유동·결정, 스턴버그는 삼원, 가드너는 다중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5. 헌법 제31조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교육과 (㉢)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 ㉠: 평등, ㉡: 초등, ㉢: 교육법
② ㉠: 평등, ㉡: 중등, ㉢: 법률
③ ㉠: 균등, ㉡: 중등, ㉢: 교육법
④ ㉠: 균등, ㉡: 초등, ㉢: 법률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 제31조의 조문 문구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교육권의 내용이 '평등'이 아니라 '균등'이고, 보호자의 의무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며,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균등 = 모든 사람의 교육 결과를 같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고르게 보장한다는 뜻이다.
법률 =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뜻한다.

핵심 구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보호자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구분의 핵심은 '평등'이 아니라 '균등', '중등'이 아니라 '초등', '교육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평등'이 틀렸다.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규정한다.
- ㄴ의 '초등'은 맞지만, ㄷ의 '교육법'이 틀렸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한다.
- 틀린 표현: 평등, 교육법
- 올바른 표현: 균등, 법률

② X
- ㄱ의 '평등'이 틀렸고, ㄴ의 '중등'도 틀렸다. 헌법은 보호자의 의무 대상으로 '적어도 초등교육'을 든다.
- ㄷ의 '법률'은 맞지만 앞의 두 요소가 틀려 전체 조합은 오답이다.
- 틀린 표현: 평등, 중등
- 올바른 표현: 균등, 초등

③ X
- ㄱ의 '균등'은 맞다. 그러나 ㄴ의 '중등'이 틀렸고, ㄷ의 '교육법'도 틀렸다.
- 보호자가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고,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는 기준도 '법률'이다.
- 틀린 표현: 중등, 교육법
- 올바른 표현: 초등, 법률

④ O
- ㄱ '균등', ㄴ '초등', ㄷ '법률'이 모두 헌법 제31조의 문구와 일치한다.
- 따라서 ④만 세 칸의 조합이 모두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평등'과 '균등'을 같은 말처럼 처리했거나, 의무교육 대상을 막연히 '중등교육까지'로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 관련 규정을 보면 습관적으로 '교육법'이라고 떠올리는 함정에도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헌법 조문 완성형 문제는 추상적 의미로 맞는 말인지보다 실제 조문 문구가 무엇인지 먼저 본다. 이 문항처럼 한 글자 차이의 대립쌍이 나오면 '균등/평등', '초등/중등', '법률/교육법'처럼 조문 원문과 정확히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교육권은 균등, 보호자 의무는 초등, 보장 근거는 법률이다.

NoteBase

문 6. 교육학의 성격에 대한 오코너(O'Connor)와 허스트(Hirst) 사이의 논쟁에서 오코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이론은 신념, 도덕, 종교 등 형이상학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② 엄밀한 자연과학적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교육이론은 예우상의 경칭(a courtesy title)에 불과하다.

③ 교육이론은 실제적 질문에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④ 교육이론은 자연과학이론에 종속되거나 열등한 이론이 아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오코너와 허스트의 교육이론관을 대비하여, 오코너가 교육이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오코너: 엄밀한 이론은 자연과학처럼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 체계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이론은 대체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예우상의 명칭이라고 본다.
허스트: 교육이론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통찰을 교육실천의 원리로 매개하는 독자적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이론은 실천 판단과 원리 형성에 의미를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신념, 도덕, 종교 등 형이상학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교육이론이 포함해야 한다는 진술은 오코너의 입장이 아니다. 오코너는 이런 가치판단 논의를 엄밀한 자연과학적 의미의 이론으로 보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형이상학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오코너는 교육이론을 가치판단까지 포괄하는 독자적 실천이론으로 보기보다,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이론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② O
오코너는 엄밀한 자연과학적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한 교육이론을 예우상의 경칭이라고 보았다. 이 선지는 오코너의 대표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③ X
교육이론이 실제적 질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생각은 허스트 쪽에 더 가깝다. 허스트는 교육이론이 교육실천의 원리를 형성하는 매개 영역이라고 보았다.
틀린 표현은 "실제적 질문에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오코너는 그런 실천적 판단 체계를 엄밀한 의미의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④ X
교육이론이 자연과학이론에 종속되거나 열등한 이론이 아니라는 진술은 허스트의 방어 논리에 가깝다. 오코너는 오히려 자연과학의 이론 개념을 기준으로 교육이론의 이론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틀린 표현은 "자연과학이론에 종속되거나 열등한 이론이 아니다"이다. 올바르게는 오코너는 교육이론이 자연과학적 의미의 이론 수준에 대체로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답 포인트

①, ③, ④는 모두 허스트의 실천지향적 교육이론관을 오코너에게 뒤섞어 놓은 선지들이다. 특히 ③의 "실제적 질문에 판단"과 ④의 "자연과학이론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럴듯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오코너의 핵심은 교육이론의 이론성을 자연과학 기준으로 엄격하게 본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코너가 나오면 먼저 "자연과학 수준의 엄밀한 이론인가"라는 기준을 떠올리면 된다. 교육이론을 예우상의 명칭으로 보거나 경험적 검증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 오코너이고, 교육실천을 위한 원리 형성과 정당화를 강조하면 허스트이다.

암기 포인트

오코너 = 교육이론은 대체로 courtesy title, 허스트 = 교육이론은 실천 원리의 매개 영역이다.

NoteBase

문 7. 인간관계론이 교육행정에 준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행정의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를 중시한다.

② 교장의 비억압적이고 비지시적인 지도력을 강조한다.

③ 학교 안 공식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된다.

④ 교육행정의 과정에서 명령, 지시보다는 동기유발, 직무만족감 증진 등이 강조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간관계론이 교육행정에 끼친 영향, 특히 공식적 조직 중심 관점에서 비공식적 조직과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성과가 구성원의 감정, 사기, 참여,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정 차이축은 공식 구조와 통제를 중시하는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관계를 중시하는지이다. 키워드는 참여, 민주적 지도성, 동기유발, 직무만족, 비공식 조직이다.
고전적 조직관은 공식 조직, 명령, 지시, 통제를 통해 능률을 높이려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공식 조직, 위계, 지시, 통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행정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를 중시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론의 영향에 해당한다. 인간관계론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협동과 조직 효과를 높인다고 본다.

② O
교장의 비억압적이고 비지시적인 지도력 강조도 인간관계론의 특징이다. 민주적이고 지원적인 지도성이 구성원의 사기와 협력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공식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된다"는 표현이다.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조직보다 비공식적 조직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올바르게는 "학교 안 비공식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된다"이다.

④ O
교육행정 과정에서 명령과 지시보다 동기유발과 직무만족감 증진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의 핵심이다.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조직의 능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인간관계론과 고전적 조직관의 초점을 뒤바꾼 선지이다. 인간관계론은 공식 조직의 기능 자체를 앞세우는 이론이 아니라, 그동안 가려졌던 비공식 조직과 구성원의 감정·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참여, 민주적 지도성, 동기유발, 직무만족, 비공식 조직이 나오면 인간관계론에 가깝다. 반대로 공식 조직, 명령, 지시, 통제, 위계가 앞에 나오면 고전적 조직관 요소인지 먼저 의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인간관계론은 공식 조직보다 비공식 조직, 명령보다 참여와 만족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8.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가치이론 - 과제수행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높은 기대는 과제수행 동기를 감소시킨다.

② 자기결정성이론 - 통제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재적 동기는 감소한다.

③ 목표지향성이론 - 수행목표지향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자기가치이론 - 자기장애(self-handicapping) 전략은 실패를 정당화하고 자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대표 동기이론의 핵심 명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기대가치이론은 과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과제가 지닌 가치가 높을수록 수행 동기가 커진다고 본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자율성·유능감·관계성 욕구가 충족될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고, 통제나 평가 압박은 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목표지향성이론에서 수행목표지향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타인과 비교해 유능함을 드러내려는 데 초점을 둔다.
자기가치이론은 실패가 무능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자기장애 전략이 자기가치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대가치이론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과제수행 동기는 커진다. 틀린 부분은 "높은 기대는 과제수행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높은 기대는 과제수행 동기를 증가시킨다"이다.

② O
자기결정성이론은 외적 통제와 평가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율성이 훼손되어 내재적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지의 설명은 이 이론의 핵심과 일치한다.

③ O
목표지향성이론에서 수행목표지향은 학습 자체보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유능해 보이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의 설명은 수행목표지향의 특징을 정확히 말한다.

④ O
자기가치이론에서 자기장애 전략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이 아닌 외적 조건으로 돌릴 여지를 만들어 자기가치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실패를 정당화하고 자기가치를 보호한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이론 이름은 맞지만 기대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고, 기대가치이론의 핵심이 "기대가 높을수록 동기가 커진다"는 점을 놓치면 ②나 ③처럼 익숙하지 않은 선지를 의심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기이론 문제는 각 이론의 대표 연결어로 판단한다. 기대가치이론은 기대·가치와 동기의 증가, 자기결정성이론은 통제와 내재적 동기의 감소, 수행목표지향은 능력 입증과 사회적 비교, 자기가치이론은 실패 상황의 자기보호를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대가치이론은 기대↑ 가치↑ 동기↑, 자기결정성이론은 통제↑ 내재동기↓, 수행목표지향은 능력증명, 자기가치이론은 자기장애로 자기가치 보호이다.

NoteBase

문 9. 학교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이어(Meyer)와 로완(Rowan)은 학교조직의 이완결합성이 신뢰의 논리를 전제로 한다고 가정하였다.

② 조직화된 무질서로서의 학교조직은 하위조직들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말한다.

③ 이완결합체제로서의 학교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④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규칙과 규정, 경력지향성 등은 전문적 성격으로서의 학교조직의 특징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교조직을 설명하는 대표 모형인 이완결합체제, 조직화된 무질서, 관료제, 전문적 조직의 핵심 특징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완결합체제는 하위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하는 느슨한 결합의 조직을 말한다. 조직화된 무질서는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가 나타나는 조직을 말한다.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 비인정성, 규칙과 규정, 경력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적 조직은 구성원의 전문성, 자율성, 동료에 의한 통제가 중심이 되는 조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Meyer와 Rowan은 학교조직의 이완결합성이 신뢰의 논리를 전제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학교는 공식구조를 갖추면서도 실제 활동은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과 맞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조직화된 무질서로서의 학교조직"이다. 하위조직들이 서로 연결되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모습은 조직화된 무질서가 아니라 이완결합체제의 특징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완결합체제로서의 학교조직"이다.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는 이완결합체제가 아니라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징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전문적 성격으로서의 학교조직의 특징"이다. 분업과 전문화, 비인정성, 규칙과 규정, 경력지향성은 전문적 조직이 아니라 관료제의 특징이다. 전문적 조직은 전문성, 자율성, 동료통제가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각 조직 모형의 대표 키워드를 서로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②는 이완결합체제의 특징을 조직화된 무질서에 붙였고, ③은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징을 이완결합체제에 붙였으며, ④는 관료제의 특징을 전문적 조직에 붙인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위조직의 느슨한 연결과 독자성이 나오면 이완결합체제를, 목표의 모호성·불분명한 기술·유동적 참여가 나오면 조직화된 무질서를, 규칙·비인정성·경력지향성이 나오면 관료제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전문적 조직은 전문성·자율성·동료통제로 구별된다.

암기 포인트

이완결합은 느슨한 연결, 조직화된 무질서는 모호성, 관료제는 규칙, 전문적 조직은 자율성이다.

NoteBase

문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 )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상담
② 숙려
③ 지연
④ 대체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학업 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학생에게 부여해야 하는 기회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문구대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상담은 지원 수단이고, 법문이 공통으로 넣는 말은 숙려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숙려 = 성급히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다시 생각하고 상담·진로 탐색을 거치게 하는 과정이다.

핵심 구분

시행령은 학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담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용이고, 빈칸에 들어가는 공통 표현은 숙려이다.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상담 기간이 아니라 숙려 기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상담은 전문상담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내용일 뿐, 시행령이 공통 빈칸에 넣는 표현은 아니다.
- 틀린 표현: 상담
- 올바른 표현: 숙려

② O
- 시행령 문구는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두 빈칸 모두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숙려가 맞다.

③ X
- 지연은 시행령이 쓰는 법문 표현이 아니며, 학업 중단을 늦춘다는 의미만으로는 상담·진로 탐색을 통한 재고 기간이라는 제도 취지를 담지 못한다.
- 틀린 표현: 지연
- 올바른 표현: 숙려

④ X
- 대체는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어서 학업 중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출석 인정 대상도 대체 기간이 아니라 숙려 기간이다.
- 틀린 표현: 대체
- 올바른 표현: 숙려

오답 포인트

상담과 숙려를 같은 말로 섞으면 틀리기 쉽다. 법문은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 뒤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주는 구조이므로, 수단과 제도 명칭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문장에서 앞부분에 예시로 열거된 지원 내용과 뒤에서 제도명으로 반복되는 핵심 용어를 구분해서 본다. 상담·프로그램은 수단이고, 빈칸에 반복되는 제도명은 숙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학업 중단 예방은 상담을 거쳐 숙려, 출석 인정도 숙려 기간이다.

NoteBase

문 11. 학력상승의 원인에 대한 대화이다. 기술기능이론에 바탕을 둔 B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A: 학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B: ( )

① 누구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② 현대 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잖아요.
③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전문성 수준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이지요.
④ 교육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력상승의 원인을 설명하는 기술기능이론과 지위경쟁이론, 사회통합 관점, 학습욕구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기능이론은 산업사회에서 직업세계가 고도화되면서 더 높은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학력이 상승한다고 보는 설명이다.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 수단으로 보는 설명이다.
사회통합 관점은 교육을 통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익혀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한다고 보는 설명이다.
학습욕구 관점은 개인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더 중시하는 설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의 학습동기를 강조한 설명이다. 틀린 부분은 학력상승의 주원인을 개인의 배움 욕구에서 찾는 점이다. 실제로 기술기능이론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직업전문성의 향상을 원인으로 본다.

② X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는 학력을 사회적 상승과 선별의 수단으로 보는 지위경쟁이론의 설명이다. 틀린 부분은 '지위획득'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 기술기능이론은 학력을 지위경쟁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형성과 연결한다.

③ O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전문성 수준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에 학력이 상승한다는 설명은 기술기능이론과 정확히 맞는다. 산업화와 분업의 심화가 더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국민들 사이에 일체감 형성'은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조하는 설명이다. 틀린 부분은 학력상승의 원인을 사회통합에서 찾는 점이다. 실제로 이 표현은 사회 전체의 결속과 규범 내면화를 설명할 때 쓰이며, 기술기능이론의 직접 원인은 직업세계의 기술적 요구 상승이다.

오답 포인트

기술기능이론과 지위경쟁이론은 모두 학력상승을 설명하지만 원인축이 다르다. 기술기능이론은 '직업전문성, 기술수준, 산업사회 요구'가 핵심이고, 지위경쟁이론은 '선별, 경쟁, 지위상승'이 핵심이다. 또 '일체감'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사회통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력상승 원인을 묻는 문제에서는 선지의 중심어를 먼저 잡으면 된다. 직업전문성이나 기술수준 향상이 나오면 기술기능이론이고, 지위획득이나 경쟁이 나오면 지위경쟁이론이며, 일체감이나 공통가치가 나오면 사회통합 관점이다.

암기 포인트

기술기능이론은 기술 요구, 지위경쟁이론은 지위 경쟁, 사회통합 관점은 일체감 형성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교수설계절차인 ADDIE 모형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계 - 평가도구를 고안하고 교수전략과 교수매체를 선정한다.

② 개발 - 실제 수업에 사용할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자료를 제작한다.

③ 분석 - 요구분석, 환경분석, 과제분석 등을 포함한다.

④ 실행 - 투입된 교수자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수설계 모형인 ADDIE의 각 단계가 무엇을 하는 단계인지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석은 학습자 요구, 환경, 과제를 파악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단계이다.
설계는 목표, 평가도구, 교수전략, 교수매체를 계획하여 어떻게 가르칠지를 정하는 단계이다.
개발은 설계안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 프로그램과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이다.
실행은 개발된 프로그램과 자료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평가는 교수자료와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판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단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평가도구를 고안하며 교수전략과 교수매체를 선정한다. 선지의 설명은 설계 단계의 기능과 맞다.

② O
개발 단계는 설계 결과를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자료로 만드는 단계이다. 선지의 설명은 개발 단계의 기능과 맞다.

③ O
분석 단계에는 요구분석, 환경분석, 과제분석이 포함된다. 실제로는 학습자분석까지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선지의 진술 방향은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실행 - 투입된 교수자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한다"이다.
실행 단계는 개발된 교수자료와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실행이 아니라 평가이다.
올바르게는 "평가 - 투입된 교수자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한다" 또는 "실행 - 개발된 교수자료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실행과 평가는 모두 개발 이후에 나오므로 둘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④에 걸리기 쉽다. 실행은 현장 적용이고, 평가는 적용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단계라는 차이를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DDIE 문항은 각 단계의 핵심 동사를 먼저 잡으면 판단이 쉬워진다. 분석은 파악, 설계는 계획, 개발은 제작, 실행은 적용, 평가는 판단으로 연결하면 선지의 틀린 대응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분석은 무엇이 필요한지, 설계는 어떻게 가르칠지, 개발은 만들기, 실행은 적용하기, 평가는 효과 따지기이다.

NoteBase

문 13. 한국의 전통적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삼국시대의 교육제도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유교, 불교, 천도교였다.
ㄴ. 고려시대의 관학에는 국자감, 학당, 향교가 있었고, 사학에는 12도, 서당, 서원이 있었다.
ㄷ. 조선시대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4서와 5경, 역사서의 강독과 제술 및 서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ㄹ. 조선시대 잡학교육은 장악원, 사역원, 전의감, 관상감 등에서 담당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고려·조선의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을 시대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삼국시대 교육은 유교·불교·도교의 영향 속에서 제도가 형성되었다.
고려의 관학은 국자감·학당·향교이고, 사학은 12도와 서당이 중심이며 서원은 조선의 사학이다.
조선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4서 5경, 역사서 강독, 제술, 서법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잡학교육은 장악원·사역원·전의감·관상감 같은 기술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의 조합이다.
- ㄱ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천도교'이다. 올바르게는 삼국시대 교육제도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을 유교·불교·도교로 본다.
- ㄴ도 틀리다. 틀린 표현은 고려 사학에 넣은 '서원'이다. 올바르게는 고려의 사학을 12도와 서당으로 보고,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기관으로 본다.

② X: ㄱ과 ㄹ의 조합이다.
- ㄱ이 틀리므로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ㄱ이 아니라 ㄹ만 옳다.
- ㄹ은 맞다. 장악원·사역원·전의감·관상감은 조선의 대표적 잡학교육 담당 기관이다.

③ X: ㄴ과 ㄷ의 조합이다.
- ㄴ이 틀리므로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ㄴ이 아니라 ㄷ만 옳다.
- ㄷ은 맞다. 조선 성균관은 4서 5경을 중심으로 배우고 역사서 강독, 제술, 서법을 익혔다.

④ O: ㄷ과 ㄹ의 조합이다.
- ㄷ은 맞다. 성균관 교육은 유교 경전 학습과 역사서 강독, 제술, 서법을 포함하였다.
- ㄹ도 맞다. 조선의 잡학교육은 전문 관청을 통해 기술관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답 포인트

삼국시대의 '도교'를 '천도교'로 바꾸거나, 고려 사학과 조선 사학을 섞어 '서원'을 고려에 넣는 함정이 핵심이다. 시대별 기관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성립 시기와 기능을 먼저 가르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교육사 문제는 먼저 시대를 삼국·고려·조선으로 나눈 뒤, 각 시대의 관학·사학·잡학교육 기관을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특히 '서원=조선 사학', '성균관=조선 최고 관학', '장악원·사역원·전의감·관상감=잡학교육'처럼 시대와 기능을 함께 묶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도교는 삼국, 서원은 조선, 성균관은 4서 5경, 장악원·사역원·전의감·관상감은 잡학교육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적용하려는 행동수정방법은?

학생: 오늘도 이론만 공부해요? 다른 반은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사: 다른 반은 지난 시간에 이론을 다 마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저희도 실험하고 싶어요. 이론은 너무 지겨워요. 실험부터 하면 안 될까요?
교사: 그럼 이론을 먼저 30분 공부하고 나서 20분 동안 실험을 하도록 하지요. 이론 공부가 잘 되면 더 일찍 실험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① 간헐적 강화
② 프리맥(Premack) 원리
③ 체계적 둔감법
④ 타임아웃(time-ou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을 덜 선호하는 활동의 강화물로 쓰는 행동수정 방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학생은 이론 공부보다 실험 활동을 더 원한다.
교사는 이론을 먼저 30분 공부하면 그 다음 20분 동안 실험을 하게 하겠다고 제안한다.
이론 공부가 잘 되면 실험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선호 활동 접근을 이론 공부 수행에 조건부로 연결하고 있다.

핵심 개념

프리맥 원리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동, 즉 더 선호되는 활동을 강화물로 사용하여 발생 가능성이 낮은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적용 요건은 먼저 하게 하려는 저빈도 행동이 있고, 그 뒤에 제공할 고빈도 행동이 학생에게 실제로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의 판단 기준은 실험이 이론 공부의 보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이다.
교사는 실험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론 공부를 먼저 하면 실험을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고선호 활동을 저선호 활동의 강화물로 사용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간헐적 강화는 모든 반응마다 강화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이나 간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강화의 빈도나 간격이 아니라, 실험이라는 선호 활동을 이론 공부의 보상으로 제시한 데 있다. 틀린 표현은 행동수정의 초점을 강화계획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선호 활동을 강화물로 쓰는 프리맥 원리이다.
② O: 프리맥 원리는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먼저 해야 할 활동의 보상으로 연결하여 덜 선호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사례에서 실험은 학생이 더 원하는 활동이고, 교사는 이론 공부를 하면 실험을 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정확히 프리맥 원리에 해당한다.
③ X: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이나 공포를 줄이기 위해 이완과 불안 위계에 따른 점진적 노출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 사례에는 불안 자극, 이완 훈련, 단계적 노출이 없고 학습행동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배열만 있다. 틀린 표현은 실험 기회를 불안감소 기법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선호 활동을 이용한 행동증가 기법이다.
④ X: 타임아웃은 문제행동 뒤에 강화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잠시 분리하여 강화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사례에서 교사는 학생을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강화환경에서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론 공부 후 실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틀린 표현은 강화 차단 절차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강화 접근을 조건부로 제공하는 프리맥 원리이다.

오답 포인트

학생이 원하는 실험이 등장하므로 막연히 강화 일반이나 간헐적 강화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은 강화가 가끔 주어지는가가 아니라, 더 하고 싶은 행동이 덜 하고 싶은 행동 뒤에 오도록 배열되었는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먼저 학생이 더 선호하는 활동과 덜 선호하는 활동을 구분한 뒤, 교사가 선호 활동을 조건부 보상으로 걸어 두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선호 활동을 미끼로 저선호 행동을 늘리면 프리맥 원리, 문제행동 뒤에 강화환경을 끊으면 타임아웃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프리맥 원리 = 좋아하는 행동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NoteBase

문 15. 하이니히(Heinich) 등의 ASSURE 모형에 따른 교수매체 선정 및 활용 절차이다. ㉠~㉤에 들어갈 절차로 옳은 것은?

(㉠) - (㉡) - 매체와 자료의 선정 - 매체와 자료의 활용 - (㉤) - 평가와 수정

① ㉠: 학습자 분석, ㉡: 학습자 참여유도, ㉤: 목표진술

② ㉠: 목표진술, ㉡: 학습자 분석, ㉤: 학습자 참여유도

③ ㉠: 학습자 분석, ㉡: 목표진술, ㉤: 학습자 참여유도

④ ㉠: 목표진술, ㉡: 학습자 참여유도, ㉤: 학습자 분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이니히 등의 ASSURE 모형에서 교수매체 선정 및 활용 절차의 정확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학습자 분석 - 학습자의 특성, 선수학습 정도,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2. 목표진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목표를 명확히 진술하는 단계이다.
3. 매체와 자료의 선정 - 목표에 맞는 교수매체와 자료를 고르는 단계이다.
4. 매체와 자료의 활용 - 선정한 매체와 자료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5. 학습자 참여유도 -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6. 평가와 수정 - 수업 결과와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학습자 분석이 먼저 되어야 목표를 적절히 진술할 수 있고, 목표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매체와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매체를 활용한 뒤에야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을 학습자 참여유도로 둔 점이 틀리다. ASSURE 모형에서 학습자 참여유도는 매체와 자료의 활용 다음 단계이다. 틀린 표현은 '학습자 참여유도'이고, 올바르게는 ㄴ이 목표진술, ㄷ이 학습자 참여유도이다.

② X
ㄱ과 ㄴ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ASSURE는 먼저 학습자를 분석한 뒤 그 분석에 근거해 목표를 진술한다. 틀린 표현은 'ㄱ 목표진술, ㄴ 학습자 분석'이고, 올바르게는 ㄱ이 학습자 분석, ㄴ이 목표진술이다.

③ O
학습자 분석 - 목표진술 - 매체와 자료의 선정 - 매체와 자료의 활용 - 학습자 참여유도 - 평가와 수정의 순서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ASSURE의 각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점까지 맞다.

④ X
처음 두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가 모두 틀렸다. 목표진술은 학습자 분석 뒤에 와야 하고, 학습자 참여유도는 매체와 자료의 활용 뒤에 와야 한다. 틀린 표현은 'ㄱ 목표진술, ㄴ 학습자 참여유도, ㄷ 학습자 분석'이고, 올바르게는 ㄱ이 학습자 분석, ㄴ이 목표진술, ㄷ이 학습자 참여유도이다.

오답 포인트

학습자 분석과 목표진술의 선후관계, 그리고 학습자 참여유도의 위치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①은 첫 단계만 맞아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학습자 참여유도는 매체 활용 이전이 아니라 이후 단계라는 점에서 탈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SSURE는 약자의 앞글자 순서대로 판단하면 된다. A는 학습자 분석, S는 목표진술, 뒤의 S는 매체와 자료의 선정, U는 매체와 자료의 활용, R은 학습자 참여유도, E는 평가와 수정이므로 앞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의 전제가 되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SSURE = 분석(A) -> 목표진술(S) -> 선정(S) -> 활용(U) -> 참여(R) -> 평가수정(E)이다.

NoteBase

문 16.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비트(Bobbitt)는 성인의 활동영역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브루너(Bruner)는 지식의 구조를 나선형으로 조직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③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지식을 통해 사회변화를 위한 비판적 의식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④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을 삶 그 자체로 간주하고 학생의 정서를 중시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과정 유형과 교육과정 이론가의 대표 관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보비트는 사회의 성인 활동을 분석해 교육목표를 설정하려 한 사회효율성 교육과정의 대표자이다.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중시하며 내용을 학생 발달 수준에 맞게 반복 심화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과 체계적인 교과지식의 전달을 중시한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아실현, 정서, 전인적 성장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보비트는 성인의 생활 활동과 사회 기능을 분석하여 학교가 길러야 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의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2번: O.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심화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주장하였다. '지식의 구조'와 '나선형 조직'의 연결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지식을 통해 사회변화를 위한 비판적 의식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는 표현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비판의식과 변혁은 재개념주의나 재구성주의 교육과정의 성격에 가깝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회변화보다 문화유산의 전달과 체계적 지식 습득을 중시한다.
4번: O.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을 단순한 미래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성장 과정으로 보며, 학습자의 감정과 자아개념 같은 정의적 측면을 중시한다. 학생의 정서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교과중심, 재구성주의,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를 섞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특히 '비판의식', '사회변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교과중심이 아니라 재구성주의 계열인지 먼저 의심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과정 문제는 먼저 관점의 초점을 확인하면 정리가 쉽다. 목표와 효율이면 보비트, 지식의 구조와 나선형이면 브루너, 문화유산과 교과지식이면 교과중심, 자아실현과 정서이면 인간중심으로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비트=사회효율성, 브루너=지식의 구조·나선형, 교과중심=문화유산 전달, 인간중심=자아실현·정서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표는 학생의 문항별 정답 및 오답을 표시한 것이다. 총점에 따른 학생별 수준을 고려할 때, 문항1 ~ 문항4 중 문항변별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단, 정답은 O, 오답은 X로 표시한다)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	총점	수준
학생A	O	X	O	X	……	99	상위집단
학생B	O	X	O	X	……	95	상위집단
학생C	X	O	O	X	……	20	하위집단
학생D	X	O	O	X	……	25	하위집단
학생E	O	X	O	X	……	90	상위집단

① 문항 1

② 문항 2

③ 문항 3

④ 문항 4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문항별 정답률 차이로 문항변별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총점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한다.
2. 각 문항에서 집단별 정답률을 계산한다.
3. 상위집단 정답률에서 하위집단 정답률을 뺀 값이 가장 큰 문항을 찾는다.

핵심 근거

상위집단은 학생A, 학생B, 학생E이고 하위집단은 학생C, 학생D이다.
문항1은 상위집단 3명 모두 정답, 하위집단 2명 모두 오답이므로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크다.
문항2는 상위집단 0명 정답, 하위집단 2명 정답이므로 음의 변별도를 보인다.
문항3은 상위집단 3명 정답, 하위집단 2명 정답이어서 두 집단 차이가 없다.
문항4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0명 정답이어서 역시 두 집단 차이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문항1은 표의 문항1 열에서 상위집단 A, B, E가 모두 O이고 하위집단 C, D가 모두 X이다. 상위집단 정답률은 100%, 하위집단 정답률은 0%이므로 변별도가 가장 높다.
② X: 문항2는 표의 문항2 열에서 상위집단 A, B, E가 모두 X이고 하위집단 C, D가 모두 O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높은 문항'이다. 올바르게는 '하위집단 정답률이 더 높아 변별도가 음수인 문항'이다.
③ X: 문항3은 표의 문항3 열에서 A, B, C, D, E가 모두 O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높은 문항'이다. 올바르게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정답률이 모두 100%라 변별도가 0인 문항'이다.
④ X: 문항4는 표의 문항4 열에서 A, B, C, D, E가 모두 X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높은 문항'이다. 올바르게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정답률이 모두 0%라 변별도가 0인 문항'이다.

오답 포인트

전체 정답자 수만 보면 문항1과 문항3이 모두 3명 정답으로 보여 헷갈릴 수 있다. 그러나 변별도는 총 정답 수가 아니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정답률 차이로 판단하므로, 모두가 맞힌 문항3은 쉬운 문항일 뿐 변별력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변별도를 묻는 표 문제는 먼저 총점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나눈 뒤, 각 문항마다 상위집단 정답률과 하위집단 정답률의 차이를 계산하면 된다. 차이가 클수록 변별도가 높고, 하위집단 정답률이 더 높으면 음의 변별도이다.

암기 포인트

문항변별도는 '상위집단은 맞히고 하위집단은 틀릴수록 커진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사항을 심의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주체와 심의사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위원 수와 위원장 선출 방식은 맞지만, 위원 임명·위촉 주체를 교육감으로 바꾸면 틀린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학교 단위 기구이다.

핵심 구분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위원 자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행령상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학교장의 당연직 방식이 아니라 위원 간 호선 방식이다.

② X
자치위원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주체를 교육감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올바른 표현: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O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사항도 심의한다. 분쟁조정은 자치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④ O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요청 권한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과 심의를 위한 권한이다.

오답 포인트

자치위원회 관련 문항은 위원 수, 위원장 선출 방식, 위원 임명권자처럼 비슷한 요소를 한 선지에 섞어 놓는 경우가 많다. ②는 앞부분이 맞아서 전체를 맞는 선지로 오인하기 쉽지만, 마지막의 임명·위촉 주체가 바뀌면서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 내 위원회 문항에서는 먼저 누가 위원을 임명·위촉하는지,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를 분리해서 본다.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이면 위원 구성의 기본 주체는 해당 학교의 장인지부터 확인하면 정답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자치위원회는 5~10명, 위원장은 호선, 위원 임명·위촉은 학교장이다.

NoteBase

문 19. 번스타인(Bernstein)의 문화전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며, 권력과 통제가 교육과정의 모든 국면에 스며든다.

② 분류(classification)는 과목 간, 학과 간 구분으로서 각 교육내용들 간 경계의 선명도를 말한다.

③ 구조(frame)는 교육내용의 선택, 조직, 진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통제력 정도를 말한다.

④ 구조화(framing)가 강하면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가 용이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번스타인의 문화전수이론에서 분류(classification)와 구조화(framing)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류는 교과·지식 영역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강하게 구분되는지를 뜻한다. 키워드는 경계의 선명도이다.
구조화는 교육내용의 선택, 조직, 진도, 평가를 누가 통제하는지를 뜻한다. 키워드는 통제의 강도이다.
번스타인은 지식이 사회적 중립 상태에서 전달되지 않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권력과 통제가 작동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 O. 번스타인은 지식 전달이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교육과정의 선택과 조직, 전달 전반에 사회적 권력관계가 스며든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 O. 분류는 과목 간, 학과 간, 지식영역 간 경계의 강약을 뜻한다. 선지는 각 교육내용 간 경계의 선명도를 말하고 있으므로 분류의 설명으로 맞다.
3) O. 구조 또는 구조화는 교육내용의 선택, 조직, 진도, 평가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뜻한다. 선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누가 통제권을 더 가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조(frame)의 취지에 부합한다.
4) X. 틀린 표현은 "구조화(framing)가 강하면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가 용이하다"이다. 실제로는 구조화가 강할수록 교사가 교육내용과 상호작용 방식을 더 강하게 통제하므로 학생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될 여지는 작아진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이 분류와 구조화를 모두 '교육과정 조직 방식' 정도로만 외우면 4번을 놓치기 쉽다. 특히 구조화가 강하다는 말을 학생 중심 운영이 잘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가 나오면 지식·교과 사이의 경계를 떠올리고, 구조화가 나오면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본다. 학생의 자율성과 요구 반영이 크면 구조화는 약하고, 교사의 통제가 강하면 구조화는 강하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분류는 경계, 구조화는 통제이다. 구조화가 강할수록 교사 통제가 강하고 학생 자율성은 약하다.

NoteBase

문 20. 규준지향평가와 준거지향평가를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 목적, 규준지향평가: 상대적 서열 평가, 준거지향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

② 구분: 검사문항, 규준지향평가: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 강조, 준거지향평가: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되지 않음

③ 구분: 득점분포, 규준지향평가: 정규분포를 기대함, 준거지향평가: 부적 편포를 기대함

④ 구분: 신뢰도 및 타당도, 규준지향평가: 타당도 강조, 준거지향평가: 신뢰도 강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규준지향평가와 준거지향평가의 목적, 문항 구성, 점수분포,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평가 기준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준지향평가는 집단 내에서 학습자의 상대적 위치와 서열을 비교하는 평가이다. 키워드는 상대평가, 서열화, 변별도, 신뢰도이다.
준거지향평가는 미리 정한 학습목표나 성취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키워드는 절대평가, 목표도달, 숙달, 타당도이다.
두 평가는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필요하지만, 규준지향평가는 학생 간 변별과 안정적 서열화가 중요하므로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준거지향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확히 재는 것이 중요하므로 타당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규준지향평가의 목적은 집단 안에서 상대적 서열을 가리는 데 있고, 준거지향평가의 목적은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다. 목적 대비가 정확하다.

② O
규준지향평가는 학생을 변별해야 하므로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진 문항이 중요하다. 준거지향평가는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규준지향평가만큼 난이도와 변별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③ O
규준지향평가는 다양한 점수 분산이 나타나는 정규분포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준거지향평가는 많은 학생이 목표에 도달하면 높은 점수대에 몰리는 부적 편포를 기대할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규준지향평가에서 타당도를 강조하고 준거지향평가에서 신뢰도를 강조한다고 뒤바꿔 놓은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규준지향평가는 상대적 서열 판별을 위해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준거지향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의 적절한 측정을 위해 타당도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일반론을 이용해 두 평가의 상대적 강조점을 서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규준지향평가의 핵심을 서열화가 아니라 내용 적합성으로, 준거지향평가의 핵심을 목표 달성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으로 잘못 연결하면 쉽게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평가의 목적이 상대적 비교인지 목표 도달 확인인지부터 본다. 상대적 비교이면 규준지향평가, 목표 도달 확인이면 준거지향평가이다. 그다음 규준지향평가는 변별도·신뢰도·정규분포, 준거지향평가는 타당도·숙달·부적 편포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규준은 서열과 신뢰도, 준거는 목표와 타당도이다.

NoteBase